

부산불교무형문화유산의 연구방향과 과제

이 현 주*

| 목 차 |

- I. 머리말
- II. 무형문화유산의 법적 개념
- III. 부산불교무형문화유산의 구성체계와 연구방향
- IV. 향후 조사연구를 위한 선결과제
- V. 맺음말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신설된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에 관한 법률」의 범주에 의거하여 향후 부산불교무형유산의 체계적 연구를 위한 연구방법론과 선결과제를 제안한 것이다.

부산불교무형문화유산의 체계적 조사연구를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문화재보호법과 무형문화재법, 그리고 불교무형문화유산령 내에서의 개념 및 분류체계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무형문화유산 고유의 특성을 고려한 구성체계 및 기술방향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과 불교무형문화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전승주체 개념에 근거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조사연구를 위한 선결과제로서 먼저 연구범위

*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 ju0112@hanmail.net

와 방법론에 있어 전승무형문화유산과 단절무형문화유산을 총체적으로 전수조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폭넓은 전문분야 연구진의 협업, 부산불교계와 지자체의 거버넌스적인 공조 체제가 절대적인 요건임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언급한 부산불교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연구에 관한 제안은 다음의 기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 학계나 불교계에서 부산불교무형문화유산의 큰 범주와 세부항목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바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제안은 부산불교무형문화유산의 연구 영역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본 고에서 제시한 전수조사의 방법론을 통해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연구된 바 없는 부산불교무형문화유산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것을 토대로 향후 심층적이고 중장기적인 연구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이번 연구에서 구축되는 부산불교무형문화유산의 연구 성과는 이후 타 지역 불교무형문화유산 연구의 방법론적 전범이 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방법론으로 각 지역별로 연구가 확대된다면 한국불교무형문화유산의 전모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속에서 부산불교무형문화유산이 가지는 위상과 지속가능한 가치도 새롭게 규명될 수 있다.

핵심어: 부산불교, 불교무형유산, 무형문화재법, 지역성, 지속성

I. 머리말

부산은 불교전래이후 지역사회의 역사문화를 선도하는 중심축의 하나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불교문화가 형성되어졌다.¹⁾ 1995년까지 전국광역시도 가운데 불교인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2005년부터는 경남지역이 앞섰으나 여전히 불교가 우세를 보이는 도시이다.²⁾ 그러므로 부산 지역문화의 정체성과 근대성을 규

1) 최영호, 『부산불교 100년사의 구성체계와 항목별 기술 내용』, 『부산불교 百年史포럼』,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 지역문화연구소 ·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2017, 41쪽.

2) 김대래, 『부산의 종교별 인구 비중 추이』, 『부산연구』 제15권2호, 2017, 75~85쪽.

명함에 있어 부산의 불교문화유산에 관한 체계적 연구조사와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³⁾

최근 부산불교계와 학계에서는 2019년 3·1운동의 100주년을 기념하여 근현대 부산사회에서의 부산불교의 위상과 사회적 역할을 조망하는 『부산불교 100년사』의 편찬사업을 기획한 바 있다.⁴⁾ 본 편찬사업의 일환으로 부산불교무형문화유산의 연구조사가 세부항목으로 결정되었으나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연차적인 조사범위와 연구방법에 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요망되었다.

- 3) 구미래는 일찍이 불교무형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의 중요성을 이미 피력한 바 있다. 구미래, 『불교무형문화유산의 체계적 분류와 조사를 위한 연구』, 『불교학연구』 제38집, 불교학연구회, 2014, 363~393쪽. 부산불교무형유산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강용권, 『부산의 전통민속』, 『항도부산』 13, 1996.12, 106~155쪽. 김승찬, 『부산의 전통문화』, 『항도부산』 13, 1996.12, 6~36쪽. 김용환·윤소희, 『영남범패의례와 소리 전승대담집』, 정우서적, 2010. 서정매, 『경상도 불교음악연구의 현황 및 전망-불교의식음악인 범패를 중심으로』, 『한국음악문화연구』 2, 2011, 65~90쪽. 『부산지역 범패승 계보연구』, 『한국음악연구』 51, 2012, 113~143쪽. 『영남지역에 전승되는 <생전예수재> 연구 - 부산·마산·밀양의 의례절차 비교를 중심으로 -』, 『동아시아불교문화』 30, 2017, 243~278쪽. 윤소희, 『영남범패연구-국립문화재연구소 회귀음반』, 2011.; 『영남범패전승에 관한 연구』, 『한국음악사학보』 41, 2008, 227~264쪽. 『일제 강점기의 범어사 범패 전승 실태-범어사 보재루와 어산계보사유공비를 통하여』, 『국악원논문집』 34, 2016, 25~148쪽. 이현주, 『부산지역 전통공예기술의 양상과 전승 연구』, 『항도부산』 31, 2015, 257~298쪽. 정관 범주·현익채 편집 등, 『물처럼 살 거래야-부산불교 100년의 발자취-』, 도서출판 무량수, 2014. 정관 증명·현익채 엮음, 『지지않는 향기, 연꽃 부산』, 불교중흥실천협의회, 2016. 조원영, 『부산의 고미술-불교 미술자료를 중심으로』, 『항도부산』 13, 1996, 225~288쪽. 『전승 자료를 통해 본 신라 통일기 기장지역의 불교』, 『항도부산』 31, 2015, 217~256쪽. 최상수, 『부산지방의 세시풍속』, 『항도부산』 2, 1963, 367~425쪽. 최현, 『영남지역의 삼회향』, 『한국음악문화연구』 12, 2018, 7~21쪽.
- 4) 『부산불교 100년사』편찬사업은 2019년을 목표로 동아대학교 인문역량강화사업단 CORE(단장 박은경)와 석당학술원(교수 최영호),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회장 박대성)등의 주최·주관으로 발주되었으며 2017년 11월 부산불교 百年史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이 포럼에서 최영호는 부산불교 100년사 연구의 전체적인 집필 구성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역사, 건축, 문학, 문화재 등 해당 연구자들에 의해 분야별 연구의 방향성을 논의한 바 있다.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지역문화연구소·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부산불교 百年史포럼』, 2017.

또한 2016년 3월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제정됨으로써 이전까지의 무형문화유산의 개념과 범주가 확장됨에 따라 이에 준거한 조사기록체제 정비도 요구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신설된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에 관한 법률」의 범주에 의거하여 향후 부산불교무형유산의 체계적 연구를 위한 조사방법론과 선결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⁵⁾

부산불교무형문화유산의 체계적 조사연구를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우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문화재보호법과 무형문화재법, 그리고 불교무형문화유산령 내에서의 개념 및 분류체계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고유 특성을 고려한 구성체계 및 기술방향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과 불교무형문화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전승주체 개념에 근거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II장에서는 2016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동년에 새롭게 제정된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에 관한 법률」과 2013년 제정된 「불교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에 관한 령」의 개념과 목적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불교무형문화유산의 구성체계 및 조사범주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III장에서는 부산불교무형문화유산의 구성체계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조사항목을 설정하였다. IV장에서는 연구를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를 제안한 후, V장에서는 부산불교무형유산 연구의 가치와 전망을 제시하였다.

5) 불교무형문화유산의 연구방법에 관한 제안은 2014년 구미래가 제안한 바 있다. 이 연구는 불교분야 무형유산연구의 중요성과 세부적인 조사기준을 제시한 선행적인 연구성으로 주목된다. 그러나 2016년 무형문화재법이 신설되기 이전이며, 본 고에서는 『부산불교 100년사』 편찬사업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구미래, 앞의 논문, 2014, 363~393쪽.

II. 무형문화유산의 법제적 개념

최근 통용되는 ‘무형문화유산’이란 개념은 광범위하게는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문화유산 일반을 의미하지만 연구대상의 개념으로 설정하고자 한다면 국내외 문화재관련 법제에서 규정하는 문화재와 문화유산, 그리고 무형문화재와 무형문화유산의 개념 차이간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문화재란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⁶⁾ 또는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⁷⁾을 의미한다. 그리고 문화유산이란 ‘장래의 문화적 발전을 위하여 다음 세대 또는 젊은 세대에게 계승·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닌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따위의 민족사회 또는 인류 사회의 문화적 소산, 정신적·물질적 각종 문화재나 문화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⁸⁾하는 개념이다. 이에 따르면, 문화재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보호의 대상으로 정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천연기념물, 사적, 명승지 따위를 이르는 용어⁹⁾인 반면 문화유산은 법률에 의해 지정 보호되는 문화재를 포함하여 전승가치가 뛰어난 문화양식 전반을 포괄한다.

즉 문화재와 문화유산은 넓은 의미에서는 유사한 개념이지만, 문화재는 가치성을, 문화유산은 가치의 지속성을 중점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무형문화재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¹⁰⁾을 말하며, 무형문화유산이

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7) 문화재보호법[시행 2016.8.4.][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제2조(정의)

8) 국립국어원, 위의 책.

9) 국립국어원, 위의 책.

1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6.3.28.][법률 제13248호, 2015.3.27.,

란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 자연, 역사의 상호작용에 따라 끊임 없이 재창조해 온 각종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을 아우르는 것’¹¹⁾을 의미한다. 특이한 점은 무형문화재와 무형문화유산에서는 두 개념에서 모두 가장 중요하게 유념되는 것은 전승의 ‘지속성’이다.

다음으로 부산불교무형유산의 조사범주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국내외 관련 법제가 제시하는 무형문화유산의 상호 관계성과 변별성을 고려해야 한다.

1.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무형문화유산의 잠재적 가치에 대한 인식은 유네스코(UNESC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과 시행착오를 통해 정착되어졌다. 1972년 세계문화유산 협약 이래 1989년 ‘전통문화와 민속에 대한 보존 장치에 관한 권고안(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이 유네스코 회원국들에 의해 채택되었고, 이 권고안과 함께 무형문화보존 훈련 프로그램, 무형문화유산 목록작성, 인간문화재(Living Human Treasures) 제도 설치 등과 같은 무형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 왔다.¹²⁾

그러나 1989년의 권고안만으로는 전통문화의 보존에 한계점을 인식하고 1998년 소멸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제정] 제2조(정의)

- 11) 2003년 10월 17일 유네스코가 채택한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내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이 개념 정의는 무형문화유산을 해석하는 유네스코 및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의미 해석으로, 전통문화이자 살아있는 문화,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통해 생활 속에서 주로 구전에 의해 전승되어 온 것 등으로 부연하고 있다.
- 12) 임돈희, 「무형유산보호 분야 유네스코 활동과 한국의 제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과 지역 연구의 과제』, 아태무형유산센터, 2010, 12쪽.

Humanity)’을 선정하여 보호하자는 결의를 하였다. 이 규약 또한 실제적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2003년 10월 17일 유네스코 총회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을 채택하였다.

이 협약의 목적은 첫째,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둘째, 관련 공동체·집단 및 개인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존중의 보장, 셋째, 지방·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 및 이러한 유산에 대한 상호 존중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넷째, 국제적 협력 및 원조 제공 등이다.

이 협약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을 ‘공동체·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표상·표현·지식·기능 및 이와 관련한 도구·물품·공예품 및 문화 공간을 말한다.’라고 정의한다. 또 ‘세대 간 전승되는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및 집단이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 및 역사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이들이 정체성 및 계속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라고 하여 무형문화유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협약에서 주목할 것은 무형문화유산의 분류체계이다. 여기에 따르면 무형문화유산은 모두 다섯 개의 범주로 나뉘는데,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으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 예술, 사회적 관습·의식 및 제전,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전통 공예 기술 등이 그것이다.

2. 문화재보호법과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에 관한 법률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

서 무형문화유산의 개념과 인식, 그리고 그 구체적인 범주는 지속적인 변화의 양상을 보여 왔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법률은 2016년 3월 제정된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6.3.28.]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이하 「무형문화재법」)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앞서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무형문화재의 영역을 확장하여 명시한 점이다.

즉, 그동안 「문화재보호법」에서 기능과 예능으로 이분화 되어 있던 무형문화재의 범주를 유네스코 협약의 내용을 수용하여 7개의 영역으로 확장시킨 것이다.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학,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이 그것이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제시된 이러한 7개의 무형문화재 영역은 무형문화유산의 통념적 개념과 인식이 바뀌었음을 의미한다. 이전까지는 무형문화재 영역과 별개로 여겨졌던 설화, 민요 등의 구전 전통이나 한의학, 농경·어로 등의 전통지식이 무형문화유산의 범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구법에서는 전승주체로서 개인이나 단체가 반드시 존속해야 했으나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인류의 보편적인 활동으로 간주되는 종목의 경우에는 특정한 전승주체가 없더라도 그 전승행위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2003년 유네스코 협약이 채택된 이후 2016년 개정된 한국의 무형문화재 관련 법령은 유네스코의 분류체계를 기저로 삼아 무형문화유산의 개념과 인식을 확대하고 그 구체적 범주를 세분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3. 불교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에 관한 령

2013년 12월 대한불교조계종은 「불교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에 관한 령」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령(令)의 목적은 불교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함으로써 불교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다. 여기에서는 ‘불교무형문화유산’을 사찰, 전승공동체, 또는 개인(이하 ‘사찰 등’)이 전승하고 있는 무형의 문화적 유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 불교의 의례, 의식, 2. 불교미술, 음악, 무용 등에 관한 전통기에, 3. 의식주 등 불교의 전통 생활 관습, 4. 불교의 수행과 관련된 전통 지식 및 관습, 5. 불교의 구전 전통 및 표현, 6. 그 밖에 한국불교에 전승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 등의 6개 범주로 분류하였다.

「불교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에 관한 령」은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기 이전 이미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근거한 범주를 수용하여 세분화된 분류체계를 갖추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더욱이 2017년 조계종에서는 전승단절위기로 보호가 시급한 불복장 작법, 다비, 통도사 단오용왕제, 해인사 단옷날 소금묻기, 불교지화, 가사 등 6개 종목을 불교무형문화유산으로 종단 지정을 결의하였으며, 그 체계적 보존과 전승,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등의 활동에 적극적 의지를 표방하였다. 이는 불교전통문화의 보존과 가치구현을 위한 불교계 내부의 자율적 움직임으로, 그 노력의 결과로 불복장 작법의 경우 2019년 4월 국가무형문화재 제139호로 지정되어 무형문화재 법률 속에서 전승보존에 대한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더욱이 불복장 작법은 한중일 삼국 중 한국이 유일하게 전승되는 불교의식인 까닭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이처럼 불교무형문화유산에 관한 종단 내부적인 전승의지는 높은 편이다.

<표 1> 무형문화유산 관련 법률 제정목적 및 범주

명칭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유네스코, 2003.11.3. 협약]	문화재보호법 [시행2016.8.4.]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 무형문화재법 [시행 2016.3.28.]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불교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에 관한령 [제정불기 2557(2013),12,19] [공포불기 2557(2013),12,19]
시행 년도	2003년	2016년	2013년
목적	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나. 관련 공동체·집단 및 개인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존중의 보장 다. 지방·국가 및 국제적 수준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 및 이러한 유산에 대한 상호 존중을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라. 제적 협력 및 원조제공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¹³⁾	불교유산으로서 역사적 의미를 가진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함으로써 불교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¹⁴⁾
정의	가. 무형문화유산의 전달 수단으로서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나. 공연 예술 다. 사회적 관습·의식 및 제전 라.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마. 전통 공예 기술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학,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 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¹⁵⁾	1. 불교의 의례·의식 2. 불교미술·음악·무용 등에 관한 전통기예 3. 의식주 등 불교의 전통 생활 관습 4. 불교의 수행과 관련된 전통 지식 및 관습 5. 불교의 구전 전통 및 표현 6. 그 밖에 한국불교에 전승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 ¹⁶⁾
기본 원칙		1. 민족정체성 함양 2.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3. 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 ¹⁷⁾	1. 불교적인 가치의 구현 2. 전통 불교문화의 계승 발전 3. 불교무형문화유산의 가치 증진 ¹⁸⁾

Ⅲ. 부산불교무형문화유산의 구성체계와 연구방향

부산불교의 역사가 깊은 만큼 부산의 불교무형유산 역시 다양한 양상으로 전승되고 있다. 그 중에는 일제강점기와 근세로의 이행에서 단절된 부분도 있으며 변형되거나 새로이 생겨난 무형유산도 상당수이다. 해당 대상범위가 광범위한 까닭에 부산의 불교무형유산의 항목들을 누락되는 사항 없이 명확하게 열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장에서는 2016년 「무형문화재 보전과 진흥에 관한 법률」의 분류기준에 의거하여 부산불교무형유산에 대해 향후 조사되어야 할 항목들과 조사가 필요한 분야들을 전통적 공예·예술, 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학,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사찰 민간 의학,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의 7종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대분류 체제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이미 규명되어졌거나 기 알려진 부산불교무형유산을 중심으로 제시하되, 새롭게 규정된 7개의 종목 속에 포함될 수 있는 세부항목들을 제한적이거나 열거하였다. 그러므로 중요 부분이 누락되었을 개연성도 있고 간과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일반적이거나 부산의 지역적 특성이 아닌 부분은 제외하려 하였으나 세밀한 부분에서는 문중과 종파의

-
- 1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6.3.28.]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제1조(목적) 참조
 - 14) 불교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에 관한 령[제정불기 2557(2013),12,19] [공포불기 2557(2013),12,19]제1조(목적) 참조
 - 15) 문화재보호법[시행 2016.8.4.] [법률 제13964호, 2016.2.3., 일부개정]제2조(정의) 2. 참조
 - 16) 불교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에 관한 령[제정불기 2557(2013),12,19] [공포불기 2557(2013),12,19] 제2조(정의) ① 참조
 - 1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6.3.28.] [법률 제13248호, 2015.3.27., 제정] 제3조(기본원칙) 참조
 - 18) 불교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에 관한 령[제정불기 2557(2013),12,19] [공포불기 2557(2013),12,19]제3조(기본 원칙) 참조

차이가 있고 전승 계보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아 세부주제의 대상에서도 누락한 부분이 적지 않다.

<표 2> 부산불교무형문화유산 분류체계¹⁹⁾

	대분류	소분류	세부항목
가	전통적 공연·예술	불교의례 불교음악 불교무용	영산재, 수륙재, 예수재, 상주권공제, 범패 작법·나비춤, 바라춤, 법고춤 등
나	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사찰건축 불교조각 불교회화 불교공예기술	대목장, 창호장 목조각장, 소목장, 석장 불화장, 단청장, 선화 주성장, 전각장, 지화장, 자수장, 염색장 등
다	한의학,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사찰 민간의학 불교 전통지식	사찰민간처방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고승법어 찬불가 사찰구전설화	게송, 오도송, 열반게, 전법게 사찰연기설화 이적설화 고승담 등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불교풍속 사찰관습 수행의식 사찰음식 사찰복식	독송, 율력, 자자, 포살 예불, 발우공양 부적 가사복식 사찰음식 사찰발효음식 사찰통과의례 다식, 다도 등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장례의식 추모의식 복장의식	다비의식 부도다례, 헌공다례 불복장작법

19) 불교무형문화유산의 조사대상은 구미래가 제시한 유형별 분류체계가 포괄적이면서도 세밀하게 항목을 구성하고 있다. 이 부산불교무형문화유산의 구성체계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파악된 사항을 중심으로 설정한 것으로, 향후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구미래, 앞의 논문, 2014, 374~375쪽.

			수계의식, 이운의식 등 영사단, 동갑계 하안거, 동안거, 우란분제, 입춘·동지 불공, 개산대제, 사천왕제, 칠성불공, 윤달 삼사순례 등
사	전통적 놀이 · 축제 및 기에 · 무예	사찰축제 불교세시의례 불교무예	팔관회, 연등회, 단오제, 백중기도, 삼회향놀이 등 선무도, 불무도, 선관무
기타	기타복합 무형문화유산	한 종목이상의 복합적 성격 내포한 분야	고승관련 구전 및 그와 관련된 의식

가. 전통적 공연 예술

불교 예술의 정수는 춤과 음악 염불 등으로 연희가 종합된 영산재이다. 영산재는 석가여래가 영취산에서 행한 설법 의식을 장엄화한 것으로 불교식 재의(齋儀)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크고 다수가 참여하는 재의이다. 다음으로는 죽은 혼령을 극락으로 천도하는 수륙재이며, 그 다음이 살아서 미리 극락으로 가는 길을 닦는 예수재이며, 마지막으로 흔히 49재라 일컫는 상주권공재이다.

『부산영산재』는 금정산(金井山) 범어사와 영축산(靈鷲山) 통도사의 승려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부산불교어산회(釜山佛教魚山會)를 이은 부산영산재보존회에서 계승하고 있는 불교 의식이다.²⁰⁾ 1972년 당시 금정산성 국청사 주지 용운(龍雲, 1895~1972)이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1호의 범패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었으나, 이듬해 그의 입적으로 종목이 해제되었다. 이후 1986년 박진주에 의해 부산어산회(釜山魚山會)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이 또한 박진주의 작고로 완결되지 못하였다.²¹⁾ 이후 1993년 강용권 교수가 영산재를 다시 채록하였고 그 성과로

20) 『부산영산재』(부산역사문화대전 <http://busan.grandculture.net> 검색일: 2019.8. 14.)

부산영산재는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전승 보존되고 있다.

영산재는 범패라는 형태의 음악과, 작법이라는 형태로 바라춤과 나비춤 등이 전승중이다. 영남의 범패는 통도사와 범어사를 중심으로 한 통범소리와 불모산 범패를 원류로 하는 불모산소리, 팔공산 범패를 원류로 하는 팔공산소리, 통영의 용화사와 안정사를 중심으로 하는 통고소리 등으로 남아 있다.²²⁾ 조선 후기 1700년(숙종 26) 통범소리에 관해 범어사에서 발간한 『어산집(魚山集)』이 집성되었고, 이 책의 책판[梵魚寺 魚山集 冊版] 전부가 현재 범어사에 전래되고 있음을 보더라도²³⁾ 영남범패의 오랜 전통을 가늠할 수 있다. 박운월이 소장하고 있는 동음집에는 53곡의 짓소리 가운데 누락된 부분이 적지 않은 반면 범어사 어산집 책판은 모든 짓소리를 수록하고 있는 점 또한 부산지역 영산재의 변성함을 짐작케 한다.

더욱이 1999년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서 「범어사 소장 전적 및 유물 학술조사보고서」에 조사된 바로는 「범음집(梵音集)」의 목판본을 비롯하여 4종의 필사본이 확인되고 있어²⁴⁾ 범어사의 범패는 어느 지역보다 체계적이고 융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부산영산재는 용운의 타계이후 그에게 지도 전수받았던 구암(九庵, 1926~2002)의 민속경연대회 출전, 범음범패교육대학 설립과 후학양성 등 활발한 전승활동을 계기로 1993년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9호로 지정되었다. 이 때 구암은 도량장엄과 범패, 혜룡(慧隆)은 범패, 청공(淸空)은 바라춤, 해강(海崗)은 나비춤의 보유자로 인정되었다. 부산영

21) 부산광역시, 『부산영산재(2017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9호)』, 2017, 2쪽.

22) 영남범패와 부산영산재에 관한 특징 및 전승계보 등에 관해서는 김용환, 윤소희, 서정매의 연구에 자세하게 밝혀져 있다. 각주3 참조.

23)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7호(1999.9.3.지정)

24)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梵魚寺 所藏 典籍 및 遺物 학술조사보고서』, 1999.

산재는 유래와 구성 및 진행절차가 독창적이고 소박하며, 작법무(作法舞)의 구성이 특이하다.²⁵⁾

한편 현재 영산재, 수록재, 예수재, 상주권공재 등에서 재를 올리는 대상이 다르나, 재의의 차이나 차별성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고 각 사찰마다 범패승인 어장(魚丈)이나 나비춤이나 바라춤의 작법(作法)에 능한 승려를 초청하여 연회를 기획하는 까닭에 참여승려의 범위나 공양주의 재력 등 시연 조건상 재의가 가감되는 경우가 있어, 각 재의별 연회구성형태의 규명이 필요하다. 또한 법보시(法布施)에 대한 보응형식으로 식당작법(食堂作法)이 있는데 이것도 재의로서 조사항목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 공예 · 미술 등에 관한 전통 기술

부산지역에서 전승되는 불교관련 전통기술분야 중에서 현재 지정된 무형문화재는 불화장, 목조각장, 선화, 전각장, 주성장 등이다. 전각장과 주성장의 경우 불교무형의 독립적 전통기술을 보유한 것은 아니지만 사찰의 현판과 주련제작, 범종제작 등 불교문화유산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지정종목 외에도 조사되어야 해당 기술분야는 상당하다. 사찰건축을 주관하는 대목장, 불단과 단집, 경상 등을 제작하는 소목장과 창호장, 사찰을 장엄하는 단청장, 영산재와 수록재 등 각종 재의에 소요되는 불번(佛幡)제작기술, 지화(紙花)제작기술 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부산의 지역성과 전통성을 인정받아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불교관련 종목은 불화장과 목조각장, 선화가 대표적이다.

25) 부산영산재의 특징과 전승자 현황은 「부산영산재」(부산역사문화대전 <http://busan.grandculture.net> 검색일: 2019.8. 14). 윤소희, 앞의 논문, 2008, 227~264쪽. 서정매, 앞의 논문, 2012, 113~143쪽. 부산광역시, 『부산영산재(2017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9호)』, 2017, 114쪽 참조.

일명 불모(佛母)라 불리는 목조각장이나 불화장의 경우 부산지역에 서는 해봉석정(海峰石鼎)과 완호낙현(玩虎洛現)이 대표적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의 보유자였던 해봉석정은 금호약효(錦湖若效)와 그의 제자 문성보응(普應文性), 그리고 금용일섭(金蓉日燮)의 계보를 잇는 불모로, 많은 수제자를 양성하였으며, 마지막 여생을 부산지역에서 보내면서 부산경남일대에서 활동하는 제자들도 적지 않다.

또 하나의 계보는 완호낙현(玩虎洛現)의 계열이다. 범어사에서 불화소를 운영하였고, 부산을 비롯하여 근세기 영남각지의 불화제작과 불상조성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던 완호의 계통을 잇고 있는 권영관이 현재 부산지역에서 활동 중이다. 완호의 불화계통은 권정두(權廷斗)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월주덕문(月洲德文)에게 전승되었는데, 그 가운데 권정두의 화업이 그의 아들 권영관에게 전해서 부산지역에서 계승 발전되고 있는 것이다.²⁶⁾ 불화는 불교 경전에 의거 도상을 배치하고 채색을 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불화초 제작과 안료 선택은 작품의 완성도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권영관은 완호낙현과 권정두의 불화초를 배우고, 현재에는 전통 도상에 의거한 다양한 종류의 불화초를 직접 제작한다. 또한 뇌록, 공작석, 진사, 상아흑, 방해석, 운모가루 등 석채와 천연안료를 사용하여 장엄하면서도 천연빛깔 고유의 깊이있는 색감을 구현해 내고 있다.

한편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0호인 목조각장 청원(靑苑)은 범택은 동산혜일(東山慧日)로부터 성운지효(聖雲智曉)로 이어지고 덕진여환(德眞如幻)과 제월통광(齊月通光)을 이었고, 불모 계보는 금호약효와 그의 제자 문성보응, 또 그 아래로 금용일섭과 해봉석정을 계승하였다. 고전적이고 안정적인 비례의 불상형식과 개금 표면에 마치 고려불화와 같은 화려하고 섬세한 채색을 가미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26) 이현주, 앞의 논문, 2015, 282~283쪽.

선화는 참선과 수행의 매개체이자 완결작이다.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9호 선화 보유자인 성각(成覺)의 법맥은 선통(禪統)과 선화통(禪畵統)으로 양분된다. 선통은 용성진종(龍成震鍾)으로 비롯되어 동산혜일(東山慧日)과 쌍계사 방장 고산혜원(杲山慧元)을 선풍을 이어받은 것이며, 선화통은 동산혜일의 상좌인 한산화엄(寒山華嚴)에게서 전수받은 것이다.²⁷⁾

이 밖에 국가무형문화재 제82-1호인 동해안 별신굿과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3호 기장 오구굿 김석출 집안의 지화접기는 부산불교의 지화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부산정남을 연고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4호 궁중채화도 불교와의 연관 아래서 발전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또한 비단에 자수를 장엄하던 전통적인 불변 형식이 사라지고 있는 정황 속에서 불변과 가사, 탁의 등에 장식하던 불교 자수의 양상들도 조사대상이다. 앞선 불교관련 무형문화재 지정종목의 전승자 이외에도 불교신도의 인구분포 비중만 큼이나 불교관련 전통기술을 보유한 우수한 장인들도 상당수 부산지역을 거점으로 활동 중이어서 이들에 대한 활동범위와 동일분야 내에서의 장인들사이의 기술의 차별적 특징들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다. 한의학, 농경 · 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농경 · 어로에 관한 전통지식으로 농경은 사찰의 울력으로 행하여져 다소 남아 있을 수 있으나 도시 사찰에 채마밭 정도이지 전통 농사일은 대체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찰에서의 어로는 살생과 결부되어 금기시 되어 있어 어로에 관한 전통지식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불교계에서 전래하는 한의학에 관한 전통지식은 종교와 민간신앙 등이 습합, 교차, 변용하면서 생성된 다양한 민간요법

27) 이현주, 앞의 논문, 2015, 285~286쪽.

과 구전비법들이 비공식적으로 전승되고 있다.

민간의학은 사찰에 병을 고치고자 발원하는 사람이 많아 옛 부터 사찰에서는 여러 가지 비방책이 전해져 왔다. 더욱이 중국 의서로 후한의 장중경(張仲景)이 지었다고 전하는 체질론에 해당되는 상한론(傷寒論)이 스님들 사이에 많이 유포되어 각종 병증(病症)에 대하여 경험상 알려진 약재를 사용한 실용 위주의 처방이나 비방이 있었다.

현재 부산의 사찰 민간요법 가운데 소화질환에 옷나무를 사용하거나 채하였을 때 해바라기꽃대를 쓰는 법이거나 신경통에 골담초 뿌리로써 술을 담가 먹거나 수세미를 달여서 먹기도 하며 분지나무 가지를 사용하는 경우는 여러 구술 채록 속에서 확인되는 내용이다. 동물성으로는 소의 쓸개를 술에 타서 먹거나 산후풍에 가물치를 먹고 때로는 두더지를 쓰기도 하며, 신경통에 녹갈나무나 굴피나무를 쓰고, 동물로는 족제비나 불개미를 쓰기도 한다. 그리고 노루의 갈비뼈를 삶아 먹기도 한다. 현대의 난치병이라고 하는 암치료에 고슴도치를 쓰거나 오래된 기와지붕에서 자라는 와송(瓦松)도 많이 쓰고 있다. 부인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쑥을 달여 먹거나 구절초·익모초를 고아 환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고혈압에 오동나무 가지를 달여서 먹거나 폐결핵에 환자 자신의 인뇨로 치료하였다는 구전도 전해 온다.

사찰의 구전비법으로 한의학 부분에 있어서는 해인종 종정 혜지와 사상 낙은사 자륜의 금침, 삼광사의 아주까리, 범어사 계통의 승려로 중풍을 예방하는 경혈침 등을 조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불교무예에 따른 접골, 양생의 식자재 등 다수가 구전되고 전래되고 있으나 이와 같은 항목은 유사 의료행위로 단속대상임으로 조사에 난점을 지니고 있다.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구전 전통 및 표현 분야 중 현재 사찰의 창건연기나 전통설화에 대해

서는 1969년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의 『부산의 고적과 유물에 관한 자료』²⁸⁾나 주영택의 『금정의 설화』, 『부산의 전설 보따리』, 『그 역사가 묻힌 금정 이야기』 등에서 부분적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2011년 부산소설가협회가 채록한 『범어와 푸른 뱀』이라는 부산설화집에서도 다소 언급되어 있다.²⁹⁾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낭백화상 설화, 범어사 구렁이 설화, 조엄 설화, 범어사 등나무 설화, 동래 정씨 시조묘의 화지사 설화, 공수마을의 해룡 설화, 범어사 대성암 느티나무, 병풍암 마애조각상 설화 등이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범어사 연기 설화, 안적사(安寂寺)의 창건 설화, 옥정사(玉井寺)의 옥천(玉泉)설화, 선여사(船餘寺)의 원효대사 설화와 석탑사 설화, 척판암(擲板庵) 창건 설화 등 부산지역 주요 사찰별로 형성된 설화들도 기록대상이다. 범어사의 경우 화엄종 사찰로 창건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이후 부산으로 편입된 기장지역의 사찰들은 모두 원효와 관련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같은 양상은 원효의 정토신앙과 화엄사상이 신라중대 이후 불교대중화 분위기에서 이 지역에 광범위하게 퍼졌음을 알 수 있으며, 장안사에 얹힌 혜통의 제병(除病)밀교 설화는 부산지역 기층사회에서의 불교의 전파양상을 가늠케 한다.³⁰⁾

이 밖에 범어사에 주석한 경허, 동산, 성철 등 여러 승려들의 계송, 오도송, 열반게, 전법게 등이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경허에 있어서는 입산가, 육시무상계, 참선곡 등 가사식으로 정립된 것이 적지 않아 국문학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³¹⁾ 경허선사의 오도송과 관련된

28) 1969년 조사에서는 선암사仙巖寺 유래와 고적, 정묘사전기鄭廟寺傳記가 간략하게 수록되어 있다. 부산초등교육회편, 『부산의 고적과 유물에 관한 자료(고적도시로서의 부산)』, 『항도부산』 7, 1969, 342~343쪽.

29) 주영택, 『그 역사가 묻힌 금정 이야기』, 2009 ; 『부산의 전설 보따리』, 가마골향토역사연구원, 2013; 『금정의 설화』, 2016. 김현일, 『범어와 푸른 뱀』 소설로 쓴 부산설화, 2011.

30) 조원영, 앞의 논문, 1996, 277쪽.

콧구멍 없는 소나 동산종사의 범어사 댓잎이 바람에 부딪치는 소리에
 활연히 마음이 열린 이야기 등도 세밀한 채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산지역 고승들의 출가 인연 이야기, 사찰생활에서의 일화나 득
 도담 등도 조사기록의 대상이다.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 관습

의식주의 전통적 생활 관습에서 먼저 의생활 부분의 승복(僧服)의 형
 태와 색은 여러 차례 변화를 겪어 현재 안정적으로 정형화되었는데, 보
 편적인 양상이기는 하나 부산불교의 무형유산의 변천을 논급할 때 빠트
 릴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1876년 문호개방 이후 일본불교가 제일 먼저
 상륙한 곳이 부산으로, 정토진종 동본원사과의 오쿠무라 엔싱(奥村圓
 心)이 1877년 부산에 포교원을 개설한 것이 그 시초이다. 사찰령이 시
 행되는 1911년 무렵에는 당시 일본의 12개 종단 49개 종파 가운데 신도
 수가 100만 명이 넘는 종단은 모두 한국에 포교소를 설치 운영하였던
 점을 미루어³²⁾ 근대일본불교의 의식주 관습은 부산지역에서 이른 시기
 부터 영향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승복 또는 법복(法服)은 승려들이 종교 활동이나 포교를 할 때 착용
 하는 일종의 제복이다. 대체로 대승불교의 법복은 회색이며, 소승불교
 의 법복은 주황색, 라마교의 법복은 붉은색이다. 안에 입는 회색 승복은
 장삼이며, 겉에 입는 장방형의 포는 가사라 한다. 원래 가사는 사람이
 버린 헌옷이나 죽은 사람의 옷을 백팔염주를 본 따 백팔개의 조각으로
 만들어 이 천을 모아 꿰매어 만든 옷으로 출발한 것으로, 중국에서는 편
 삼을 착용되었으며 한국에 와서는 가사에 장삼을 두르는 형태로 변천하

31) 엄경흠, 「부산불교 100년의 자취를 기록하자」, 『부산불교 百年史포럼』, 2017, 82~84쪽.

32) 김순석, 「부산불교 100년사 편찬에 대한 제언」, 『부산불교 百年史포럼』, 2017, 65쪽.

게 된 것이다.

가사의 종류를 율장의 기록에 의해 살펴보면 용도에 따라 안타회, 울다라승, 승가리로 구분한다. 승가리는 법문으로 대중을 교화한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가사라 하면 승가리를 가리킨다. 색조의 측면에서도 현재 조계종과 태고종과 천태종 및 진각종 등으로 종파별로 구분되고 있으며, 형태적인 면에서도 종단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사의 모양이 사방으로 모가 난 방북, 인간의 모든 사혹을 금지하는 뜻의 할절의, 가사의 형태가 발의 모양과 같다고 해서 생긴 전상의가 있다. 편단우견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어 붓다에게 공경과 존경의 마음을 표시하는 착용법이고, 통견은 설법을 하거나 위의를 갖출 때 취하는 착용법이다. 이 두 가지 착용법의 의미를 볼 때 수행자의 가사착용은 수행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타인도 해탈하게 한다는 사상을 포함하고 있어 가사를 통해 중생을 구제하는 대승불교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가사는 주 폭을 중심으로 조가 좌우대칭으로 되어있고, 안과 밖의 구별이 있으며, 겹가사와 홑가사가 전래되고 있다. 과거에는 법계에 따라 주수, 문양, 색, 소재 등을 표시하였으나 현재는 각 종단마다 조(條)와 수(繡), 문양, 소재를 가지고 구분하고 있다.

다음 식생활의 경우 사찰식기는 발우(鉢盂)가 기본이다. 이 부분도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특징이긴 하나 승려의 범복과 가사 등과 더불어 다루어야 할 요소이다. 발우는 절에서 쓰는 승려의 공양 그릇으로, 나무나 놋쇠로 만들고 발우대, 발다라, 바리때, 바리 따위로 부른다. 부처가 탁발할 때 중생이 공양하는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넘치는 일이 없고 아무리 적은 양이라도 그릇에 가득 차 보였다고 해서 응량기(應量器), 응기(應器)라고도 부른다. 부처님 당시의 세 별의 가사와 한 별의 발우를 뜻하는 삼의일발(三衣一鉢)은 수행승이 지녀야 하는 필수적인 승물이었다. 선불교의 전래이후로는 옛 조사스님들이 전법할 때 전법의 증표

로 삼기도 하였다.

발우의 어원은 ‘식기’를 뜻하는 산스크리트어 ‘파트라(pātra)’를 음역한 발다라(鉢多羅)와 의역한 ‘우(盂)’를 합친 것이다. 한국에서는 밥, 국, 물, 반찬 그릇 네 개가 한조로 되어있다. 발우를 포개어 놓았을 때 제일 아래 놓이는 큰 그릇은 어시발우[頭鉢]라고 하여 죽이나 밥을 담고, 크기에 따라 국, 청수물, 반찬 순서로 담는다. 성철스님이 봉암사 결사할 때 경전을 참조하여 목발우를 쓰는 것은 외도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모두 목발우를 깨트리거나 태워 없애기도 하였으며, 흙발우나 쇠발우로 돌아간 적이 있었다. 그러나 실제의 사용에서 흙발우는 잘 깨어지고 철발우는 무거워서 다시 목발우를 허용하였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찰음식으로 가장 유명한 곳은 서울의 진관사인데 부산의 범어사에서도 대성암 도감인 성공스님이 범어사의 행사에서 50여종 이상의 사찰음식을 공양하여 큰 스님을 모시기도 하였고, 부산 벡스코에서 매년 사찰음식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

범어사 대성암에서는 만공의 모친 의선(義先)의 위패 상좌이신 만성이 주석하여 사찰 음식의 기틀을 다졌으며, 성공의 은사인 정원이 사찰음식에 달통하여 전통적 사찰 음식의 성격이 부산지역에서도 강하게 남아 전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찰에서는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식재료의 필요에 의해 특히나 발효음식이 발달하였다. 사찰음식들 중 특히 부각이나 장아찌 등은 채소가 나지 않는 철을 대비하여 오래도록 보관 관리할 수 있는 불교적 성격을 반영한 음식이라 할 것이다. 천룡사 주지 효종이 사찰된장, 사찰간장 등의 발효양념류와 차 제작 등에 일가견을 가지고 있다.

한편 불가에서 공양할 때 외우는 다섯 행의 계송[五觀偈]에 담긴 의미는 물론 식사와 관련된 의식도 수행의 일부이다. 음식이 상에 올라오

기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정성과 공이 쌓였으므로 이를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허물에서 비롯되는 온갖 탐욕을 버리고 육신에 바른 생각이 깃들도록 하는 방법으로 삼아 득도를 이루기 위해 몸을 낮추어 먹겠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사찰음식의 재료나 요리법은 단순히 일상적인 행위가 아닌 크고 작은 불가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찰음식에 관해 계절별, 재료별, 사찰별 주요음식을 분류하고 그 특징과 요리법의 조사 연구를 진행한다면 지역성 또한 다소 규명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사찰의 통과의례로는 수계의식과 다비의식이 있으며 대중사 대선사의 기일재를 비롯하여 부도다례 등이 있다. 이 밖에 사회적 의식으로 불복장 작법과 점안의식이 있다.

범어사는 고승 대덕이 많이 나와 조계종의 전계대화상을 많이 배출하여, 수계의식의 장소가 되기도 하였다. 수계(授戒)는 출가자·재가자의 구별 없이, 불교를 받드는 자들이 지켜야 하는 계율에 따를 것을 맹세하는 것으로 일정한 의식법이 있다. 재가자의 경우에는 5계만 주어졌으며 비구는 250계와 비구니의 348계를 받았다. 수계에는 계를 주는 수계사(授戒師), 계단에 대한 여러 가지 작법을 가르치는 교수사(教授師), 그 작법을 실행하는 갈마사(羯磨師)의 3사와, 그 자리에 입회하여 그의 수계를 입증하는 7명의 증인(이를 三師七證이라 한다)이 필요하다. 대승에서는 앞에서 말한 3사중 어느 한 사(師)만에 의한 수계와, 사 없이 스스로 서약하는 자서수계(自誓授戒)가 있다.

다비의식은 승려의 장송의식으로 이 의식의 절차는 먼저 오방불(五方佛)에 귀의하여 오방불의 자비심으로 죽은 이의 영혼을 잘 인도하여 줄 것을 발원하며, 죽은 이에게 옷을 입히는 착군(着裙)과 착의(着衣),

관을 쓰게 하는 착관의식(着冠儀式)을 행한 뒤, 죽은 이의 영혼을 정좌시키는 정좌의식으로 정좌편(正坐篇)과 안좌계(安坐僞)를 염불하며, 죽은 이의 영혼에게 음식을 베푸는 시식(施食)을 행한다. 입관한 뒤 관을 운구하게 되는데 이때의 발인의식을 기관(起棺)이라고 한다. 기관의식 때는 영혼에게 행하는 설법인 착어(着語)를 비롯하여, 축원을 행하며 왕생극락을 바라는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계속한다. 화장장에 이르기 전 노제(路祭)를 지내며, 화장장에 이르러서는 거화(擧火)와 하화(下火)의 의식을 행한다. 이 의식은 화장을 하게 되면 고통을 떠나서 열반에 들게 되며 영생을 얻음을 뜻하는 의식이다. 이어서 죽은 이의 영혼을 저 세상으로 보내는 봉송의식(奉送儀式)을 행하고, 죽은 이의 영혼이 새로운 몸을 받아 새로운 옷을 갈아입을 것을 바라는 창의를식(唱衣儀式)을 행한 다음, 화장하고 남은 유골을 수습하여 분쇄하고 흠어버리는 기골(起骨)·습골(拾骨)·쇄골(碎骨) 의식을 행한다. 이 때 환귀본토진언(還歸本土眞言)을 외면서 영혼이 원래의 본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발원한다.

다비의식은 각 사찰 문중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장작을 쌓는 방법도 지형에 따라 다르다. 사후강직이 풀리면 결가부좌하여 앉은 채로 다비함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현재 사지 발굴유지의 다비혼적은 대체로 장방형이 아니고 정방형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어 세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최근 조계종 종정 서용 입적이후부터 누운 채로 다비형식으로 바뀌기도 하였고, 법정스님의 경우 돌아가신 침대 채로 다비하였다.

다비장(茶毘場)이 마련된 사찰은 2014년 기준 조계종 교구본사 중 다비장이 마련된 곳은 월정사, 법주사, 수덕사, 직지사, 해인사, 쌍계사, 범어사, 통도사, 고운사, 송광사 등 14곳만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또한 전국사찰의 선사, 문중의 큰스님의 5% 미만에서 다비의식이 봉행되고

있다.³³⁾

범어사 다비는 범어사 설법전에 주석하는 석공(石公)에 의해 계맥이 전승되고 있다. 석공은 고암·석담·창봉스님의 계보를 잇는 범어사 다비승이다. 2014년 불교문화재연구소와 총무원 문화부의 조사에 의한 사찰별 다비전승은 해인사 다비의 종성, 선암사 다비의 지허, 백양사 다비의 만당, 수덕사 다비의 도준, 봉선사 다비의 현호건사만이 조사되었으며, 이 계맥을 잇는 전수자는 전무하여³⁴⁾ 다비의식의 전승은 현재 단절 위험이 높다.

그 가운데 석공에 의해 전승되는 범어사의 다비는 그 봉행하는 절차와 양식이 타 사찰과는 확연히 차별화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범어사는 돌담과 솥을 사용하는 전통이 있다. 감을 넣을 수 있도록 강목으로 틀을 만들고 그 둘레에 통나무를 세우고 위에는 나무토막과 솥을 차곡차곡 넣는다. 쌓은 나무를 명석으로 두르고 새끼줄로 고정한다. 다음 흰색 무명 천으로 둘러 감싸고 그 위에 창호지를 바른 후, 다시 그 겉으로 연잎을 하나씩 붙여 커다란 연꽃송이를 만든다. 그런 다음 돌담처럼 만들어진 다비장에 솥으로 바닥을 채우고 중간에 범구를 안치하고 다시 솥으로 채운다. 다음 명석이나 새끼로 덮어 연화대를 만들고 상여를 그 위에 모신 후 거화하는 절차이다.³⁵⁾ 이는 일자형의 도량위에 장작을 쌓고 생솔가지를 덮어 연화대를 만드는 통도사의 다비의식이나 2m 높이로 장작을 둘러쌓아 중간에 범구를 모실 헛곽을 만들고 솥을 넣는 해인사 다비의식 등과는 확연히 차별화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범어사 다비는 향후 전승할 후계자가 없고, 의식봉행도 간소화되고 있는 실정인 까닭에 조사기록의 시급함이 요망되는 항목이기도 하다.

33) 진성득, 「불교 다비의식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63쪽.

34) 불교문화재연구소·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다비현황 조사보고서」, 2013.

35) 진성득, 앞의 논문, 57~58쪽.

한편 범어사에서는 음력 2월 24일 용성대중사, 음력 8월 8일 성월 대중사, 음력 3월 23일 동산대중사, 음력 8월 29일 지효대선사의 기일제 올리고 있으며, 말사나 암자에서는 청련암 양익대선사, 정수암 지백대선사, 흥부암 선용대선사, 칠불사 통광대선사, 무진장선원 무진장대중사, 금강암 벽파대선사, 대법사 여환대선사, 동림사 화엄대선사, 백련사 관조대선사, 복천사 도해대선사, 안적사 덕명대중사의 기일제를 거행하고 있다. 그리고 경내에 40여기의 역대 고승 부도가 안치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10여인 이상의 승려가 부도 다례제를 봉행하고 있다. 이 밖에 동래부사와 경상감사, 통신사를 역임한 조엄이 범어사의 노역을 감해준 은공으로 영사단을 지어 재를 올리고 있다. 이와 같은 재의절차 또한 범어사를 중심으로 거행되고 있어 부산불교의 지역성을 반영한다.

불복장 작법은 신앙의 대상을 법당에 봉안하기 전에 예배대상으로서의 존송하는 의식으로, 『조상경』에 의해 행해진다. 불교에서 신앙의 대상이 되는 불상이나 불탑, 불화 등은 본래 종이나 돌, 나무, 천 등 천연물에 불과한데, 여기에 조각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인공을 가하면 예술품이 되며, 이 예술품에 살아 있을 때의 불보살의 영감과 위신을 불어넣으면 신통력이 들어가 신앙의 대상이 된다. 점안은 이렇게 완성된 불상과 불구(佛具)에 부처의 영험과 종교적 생명력을 불어넣는 의식이다. 법의(法衣)인 가사(袈裟)도 점안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법을 설하는 권위를 갖게 되고 부처님을 대신하여 지혜와 덕을 갖춘 정의(淨依)가 될 수 있다.

현재 거행되는 점안식으로는 불상점안·시왕점안·사천왕점안·조탑점안(造塔點眼)·불화점안·가사점안(袈裟點眼) 등이 있다. 이들 점안식은 점안의 대상이 지니는 신앙적 기능에 따라서 그 의식내용도 달라진다.³⁶⁾ 부산지역에서의 불복장 작법은 명장동 금불사의 대원이 활

36) 『한국민족대백과사전』

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울력은 현재 도시 사찰은 농토가 없는 여건상 불가하여 도량 청소로 대신하고 있다. 승려의 자기반성인 자자와 포살은 부처님 당시부터 행해지던 전통적인 의식으로 평등한 승가공동체를 이루는 출발점이며, 계율에 근거하여 화합 승가를 이루는 윤리적인 실천이다. 포살은 매월 15일과 그믐날 행해졌는데, 계율을 어긴 것이 있으면 자기반성과 참회를 하고 자자는 안거 후 안거 동안의 허물을 지적해 참회하여 승가의 화합과 청정을 유지해 온 전통이다. 제32대 조계종 총무원장인 지관 때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고 실천하여 한국불교 계율전통과 실천을 위해 노력하였다.

한편 사찰에서 기복이거나 재앙을 물리친 방책으로 부적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불교의 교리는 아니지만 민간신앙과의 습합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착된 현상이다. 부적은 경면주사로 쓰여 지는데 대별하면 복을 비는 부적과 삼재를 물리치는 부적이다. 복을 비는 부적은 불(佛)과 구(口), 전(田) 등 복(福)자와 관련된 부호로 구성되며, 액을 물리치는 부적은 액을 무리치는 주문인 ‘어흠그릅여율령사파쇄’[嚴嚴急急如律令邪破殺]의 엄(嚴), 급(急), 율령(律令), 쇠(殺) 등을 조합하여 법과 같이 급하고 엄하게 시행될 것을 써서 몸에 간직하거나 문비(門扉)에 붙였다. 부적을 쓰기 전의 진언, 부적 쓰는 법, 부적 간수 방법 등에 대한 조사연구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 전통적 놀이 축제 및 기예 무예

부산 불교의 전통적 놀이와 축제로는 초파일의 연등행사를 비롯하여, 팔관재계를 지키기 위해 십 수년 전부터 부산에서 재현 복원되고 있는 팔관회를 손꼽을 수 있다. 이 밖에 작은 축제로는 금강사의 차밭골 문화재, 동래 자비암의 임진 선열 추모제, 영도 태종사의 수국 꽃 축제 등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수이다.

부산 출신으로 1947년부터 한국민속학회 회장을 역임한 석천(石泉) 최상수(崔常壽)가 『부산의 세시풍속』에서 칠성제, 법고치기, 삼재(三災) 비방, 제웅(處容) 우란분회(盂蘭盆會) 등 불교 관련 풍속을 소개하였다.³⁷⁾ 특히 관등(觀燈)에서는 동래 지방의 수박등, 일월등, 거북등, 오리등, 배등, 북등, 연화등, 학등, 잉어등, 향아리등, 칠성등, 마늘등 등 다양한 등(燈)의 형태가 조사되었고, 어느 지역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관등가(觀燈歌)도 채록되어 있다. 부산의 연등 행사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당시 구덕공설운동장에서 광복동 시내로의 행렬이 다채로왔으며 이후 각 사암별로 번성 발전되었으며 등(燈)도 더욱 다양화되고 대형화되었다.

부산의 팔관회는 2000년에 해운대에서 부산불교연합회가 주축이 되어 개최되어 지금은 범어사를 중심으로 재현되고 있다. 부산팔관회는 2010년경부터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하여 해마다 학술대회나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부산지역 팔관회의 역사와 가치 규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현재는 이에 의거하여 의식의 재현과 전승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의 불교 무예는 범어사 청련암의 양익(兩翼, 1954~2006)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양익은 범어사 일주문을 넘었다는 설도 있으며 돌아가실 때 앓은 채로 좌탈입망한 인물이다. 이 양익의 제자들이 각기 문파를 이루어 현재 불교 무예는 크게 선무도(禪武道), 불무도(佛武道), 선관무(禪觀武)의 3파로 나뉘어져 있다.

양익이 창안한 무술의 원래 이름은 ‘금강영관(金剛靈觀)’라 하여 신체적인 무(武)외에 정신적인 참선과 수련도 겸해 하는 ‘관법수행’의 일종이며 다른 무술들의 사고와는 체계를 약간 달리한다. 대외적으로는

37) 최상수, 앞의 논문, 1963, 367~425쪽.

1971년부터 범어사 극락암에 금강영관 연수원을 개원하면서 전수하기 시작하였고, 1978년 범어사 청련암으로 이전하여 금강영관 수련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본격적인 후학양성에 나섰다.³⁸⁾ 양익의 승려제자로는 원옥·적운·법찬·안도·광원 등 20여 명이 있고, 속가제자로는 최종열 법사 외 20여 명이 있다. 제자 중 원옥이 맏 상좌이다. 지금은 양익이 좌탈 원적하였고 제자들이 제각각 독립적으로 불교금강영관을 전수하고 있는데 원옥은 선관무, 적운은 선무도, 법찬과 광원은 관선무, 안도는 불무도, 재가제자이며 『산사에서 무예를 배우다』 저자인 최종열 법사는 부산에서 불교금강영관 계승회 단체를 발족하였으나, 명칭만 다를 뿐 수련체계는 똑같다. 삼국시대부터 전해진 전통무술으로 주장하기도 하나 역사적으로는 양익이 사찰 단련법으로 재현·구축된 무술로 보아야 한다.

선무도는 경주 골굴사를 중심으로 적운이 주도하는 문파로서 양익의 금강영관을 본 따 선무도 대금강문을 열었으며 선무도 대학도 있다. 불무도는 해운대 장산 원각사를 총본원으로 안도를 문주로 호국 무술로 발전하고 있다. 선관무는 정(靜, 호흡), 중(中, 오체유법), 동(動, 대련)으로 구성되며, 양익의 맏상좌인 전 서울 호암사 주지였던 원옥이 주관하고 있다.

IV. 향후 조사연구를 위한 선결과제

부산불교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해 몇 가지 선결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향후 보완이 필수적이긴 하지만 앞서 제시한 분류체계와 세부항목을 염두에 두고 그 연구범위와 연구방법을 설정해야

38) 『범어사불무도』(부산역사문화대전 <http://busan.grandculture.net> 검색일: 2019.8. 14).

할 것이다. 그런데 불교무형문화유산의 경우 단절된 유산과 지속되는 유산, 현대화된 유산이 혼재되어 있으며, 또한 부산이라는 지역성과 더불어 지역을 뛰어넘는 종파와 총림, 사제관계 등 계통성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연구범위와 방법에 대한 신중한 선택이 요망된다. 연구범위의 설정을 위해서 세 가지 안을 상정할 수 있다.

첫째는 활발하게 전승되는 무형문화유산[이하 전승무형문화유산]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며, 둘째는 전승이 단절되었더라도 공동체가 기억하는 무형문화유산[이하 단절무형문화유산]만을 연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승무형문화유산과 단절무형문화유산 모두를 포함시키는 방안이 있다.³⁹⁾

첫 번째 안을 선택할 경우 그 대상이 역사적 전통성을 확보한 경우, 전통성과 현대성의 공존,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한 지속성의 가치가 규명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의 역사성이 짧거나 보편적인 성격이 강한 경우 전통성과 부산의 고유성을 확보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두 번째 안의 경우 학문적 성과가 높고 불교무형문화유산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해당 문화유산의 현재성과 향후 미래적 가치를 논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세 번째는 부산불교무형문화유산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지니나 이후 연구과정에서 연구자, 연구기간 확보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

다음으로,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조사연구방법론에는 표본조사, 중점조사, 전수조사가 있다.

첫째, 표본조사는 연구자들의 논의를 통해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후 7개의 영역에서 대표성을 띤 한 개의 항목씩을 선별하여 조사 연구하는

39) 연구범위의 설정은 다음과 같은 연구조사방법을 참조하여 제안하였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유산 자원조사 연구』, 2012.; 『무형유산 조사의 현황과 방안』, 무형문화유산 학술총서3, 2015.

것이다. 예를 들어 전통공연예술로서 팔관회, 사회적 의식에서 다비, 전통공예기술에서 지화장 등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론은 차후 세부항목을 연구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둘째, 중점조사이다. 이 방법론은 한 영역에 해당되는 항목들을 집중 조사하여 연구결과를 제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한 영역만을 선택하여 이에 해당하는 대목장, 소목장, 주성장, 지화장, 불화장, 조각장 등 모든 항목들을 조사 연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한 분야에 집약되어 연구결과와 완성도와 해당영역의 완결성을 꾀할 수 있다. 또 학제간의 협업을 통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가치규명이 가능하여 학문적 성과 또한 지대할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은 부산불교무형문화유산의 전 영역을 살피는 데 최소 7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전수조사이다. 이 방법론은 7개 영역에 해당되는 세부항목들을 총 망라하여 조사하고, 그 과정에서 새롭게 발굴된 항목 또한 추가로 포함시키거나 가감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정된 세부항목들을 역사성, 지역성, 지속성, 예술적 가치성 등 일정기준에 따라 주요대상과 상세대상, 목록대상 등의 층위로 분류하는 것이다. 층위에 따라 서술방식과 연구의 심도를 조절하되, 총 망라된 세부항목들은 연구결과에 모두 포함시키는 형식이다.

이 방법론의 경우 부산불교무형유산의 전체를 조망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중에서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항목과 비록 현재에는 전승이 단절되었지만 역사적 가치가 뛰어난 항목, 그리고 향후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지닌 항목 등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산불교무형유산에 대한 향후 전승방안이나 연구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 타당성을 지닌다. 단, 동시에 대규모의 연구진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

에서 현실적 문제점이 예상된다.

하지만 부산불교무형유산의 전모를 밝히고 그것을 통해 부산불교의 가치와 전망을 통시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면, 전승무형문화유산과 단절무형문화유산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전수조사의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표 3> 무형문화유산의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연구범위	연구방법
전승무형문화유산	표본조사
단절무형문화유산	중점조사
전승+단절무형문화유산	전수조사

한편 전수조사를 통해 부산불교무형문화유산의 전승현황과 분석이라는 연구방법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제시된 분류체계는 크게는 7개의 항목이며, 세부항목까지 고려한다면 그 범위는 더욱 넓어진다. 따라서 다양한 해당분야의 전문 연구진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할 것이다. 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분야만 하더라도 이미 문화재로 지정되어 연구 성과를 다소 확보하고 있는 주성장, 불화장, 목조각장 이외에는 대목장, 소목장, 창호장, 단청장, 지화장, 지수장 등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불교관련 공예제작기술 장인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전무한 실정이다. 전통적 공예·예술 분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영산재와 부산지역에서 활발하게 연행되는 팔관회, 연등회 등 주요 의식 외에는 학술적인 조사기록은 물론 그것들이 부산불교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고유성을 어떻게 담보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성과는 드물다. 즉 앞장에서 제시한 대분류 항목에서 그 세부항목들에 이르기까지, 부산광역시지정 무형문화재 중목을 제외하고는, 부산불

교문화유산과 관련한 축적된 연구 성과는 희소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문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분야별 해당 연구자의 확보는 절대적인 요건이다.

마지막으로 부산불교계와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및 지역학계 등의 전문기관, 그리고 지자체간의 거버넌스(governance)적인 연구협력 체계의 구성이 선결되어야한다. 부산불교무형유산은 부산불교의 역사이자 동시에 부산의 역사이다. 따라서 부산불교무형문화유산의 조사와 연구는 비단 불교계와 지역학계만의 과제는 아니다. 부산의 역사문화의 형성과 정체성에 기여한 부산불교의 역할을 인식한다면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은 필연적이다. 특히 불교무형유산의 전승관리와 보호 조치를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역할은 지대하다.

더불어 부산불교계에서도 불교의례나 연회, 전통기술 등이 특정 종교영역이란 의식을 뛰어넘어 우리고유의 문화자산이란 인식 속에 학제간의 교류와 학계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가 요망된다.

현재 지정된 국가 및 시도지정 유형문화재의 70%이상이 불교문화재에 해당된다.⁴⁰⁾ 이 같은 현상은 불교문화유산이 단순히 종교적 산물이 아니며, 그 신앙과 의식을 기저로 형성된 고유한 한국문화유산의 한 갈래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교관련 무형문화재의 경우는 그 비중이 높지 않다.⁴¹⁾ 더욱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13목록 가운데 해인사 장경판전(1995), 석굴암과 불국사(1995), 경주역사유적지구(2000), 한국

40) 구미래, 앞의 논문, 2014, 367쪽.

41) 2018년 기준 국가무형문화재 142개 종목 가운데 불교관련 종목은 영산재, 연등회, 삼화사수륙재, 진관사수륙재, 아랫넛수륙재, 불복장작법 등의 의례의식과 단청장, 목조각장, 불화장, 주성장 등 전통기술 영역에서 10여 종목만이 지정되어 있다. 전통지식이나 구전표현, 생활관습, 기예무예 등의 영역에서는 아직 발굴이 전무하다. 시도무형문화재의 경우 역시 2018년 기준 601개 종목 중 불교관련은 부산영산재, 불모산 영산재, 광주 영산재, 어산, 범패와 작법무, 인천수륙재, 내포영산대제, 제주불교의식, 월정사 탐돌이 등과 목조각장, 불화장, 선화, 주성장, 단청장 등 여전히 불교의례의식과 전통기술에 국한되어 있다.

의 산사(2018) 등 30%가 불교문화유산이며, 세계기록유산의 경우 16목록 중 불조각지심체요절 하권(2001),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2007) 등 12%가 해당되지만, 인류무형문화유산 가운데서는 영산재(2009)기 유일하다. 이 같은 양상은 역설적으로 발굴되지 않은 불교무형자산의 무한한 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부산불교무형문화유산의 향후 연구는 부산불교계와 지역학계, 그리고 지자체간의 거버넌스적인 협력체제를 기반으로 유네스코와 무형문화재법에서 문화유산의 본질과 가치 중 가장 중시하는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연구 성과는 전승보존을 위한 기록과 아카이브구축 등 데이터 구축에 머물 것이 아니라 진일보하여 ‘지속적인 전승을 위한 보호조치’로서 무형문화재로 발돋움해 나가야 하며, 나아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의 위상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도약하여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의 불교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는 특정 주제를 위한 개별적인 연구, 또는 문화재 지정을 위한 일시적인 방법론에 의해서 수행되어 왔다. 이에 비해 본고에서 제안한 구성체계와 연구방법론은 국제협약이나 법률과 령에 바탕을 둔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며 학문적, 행정적 방향성까지 제시하였다. 하지만 불교무형문화유산의 방대함과 심오함으로 인해 몇 가지 예상되는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불교무형문화유산의 방대함으로 인해 획일화된 연구방법론의 도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불교무형문화유산의 형성과 전승에 관여하는 전승주체들의 다양성(예를 들어 종단, 사찰, 승려, 신

도, 장인 등)으로 인해 한 세부항목 속에서도 각기 상이한 전승행위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단계는 불교무형문화유산의 심오함에서 기인할 수 있다. 해당 전문 연구진이 참여한다는 전제에서, 모든 세부항목에 대한 현황 파악이나 객관적 분석 단계에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리나 의미를 해석하는 단계에 이르러서, 특정 항목의 경우 그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예컨대, 선화의 경우에서처럼 그 속에 담긴 원리나 의미는 연구자의 학문적 소양과는 별개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부산불교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본 연구는 다음의 기대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 첫째, 지금까지 부산지역의 학계나 불교계에서 불교무형문화유산의 큰 범주와 세부항목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바 없는 상황에서 이번 시도는 부산불교무형문화유산의 연구 영역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둘째, 본고에서 제시한 분류체계의 틀을 통해 지금까지 총체적으로 연구된 바 없는 부산불교무형문화유산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것을 토대로 향후 심층적이고 중장기적인 연구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셋째, 이번 연구에서 구축되는 부산불교무형문화유산의 연구 성과는 이후 타 지역 또는 종단을 중심으로 한 불교무형문화유산 연구의 방법론적 전범이 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방법론으로 각 지역별로 연구가 확대된다면 한국불교무형문화유산의 전모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 속에서 부산불교무형문화유산이 가지는 위상과 가치도 새롭게 규명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에 분포된 불교무형문화유산을 중심으로 연구방법론과 선결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본격적인 조사연구가 진행된다면 수정 보완되어야 할 항목과 내용들이 적지 않다. 세분화된 조사대상 선정과 심도있는 분야별 연구는 향후 해당전문 연구자들과의 협업적 논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보완되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및 보고서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불교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에 관한령』

강용권, 『향도의 민속문화』,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소, 1996.

_____, 『향도의 민속』, 석당전통문화연구소, 1988.

경성대학교 한국학연구소, 『梵魚寺 所藏 典籍 및 遺物 학술조사보고서』, 1999.

국립문화재연구소, 『불교민속놀이』, 2002.

김용환 · 윤소희, 『영남법패 : 의례와 소리전승 대담집』, 정우서적, 2010.

대한불교조계종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지화장엄』, 2003.

_____, 『불교무형문화유산 종목 조사보고』, 2008.

_____, 『한국의 수륙재』, 2010.

대한불교 전통불복장의식 및 점안의식 보존회 · 불교문화재연구소, 『전통불복장
의식 및 점안의식 : 造像과 禮敬』, 2014

동아대학교석당학술원 · 지역문화연구소 · 부산광역시불교연합신도회, 『부산불교
百年史포럼』, 2017.

문화재청, 『전주의 무형문화유산』, 2017.

_____, 『일제강점기 단절된 무형유산 사례와 가치의 재발견』, 무형문화유산 학
술총서4, 2015.

_____, 『무형유산 조사의 현황과 방안』, 무형문화유산 학술총서3, 2015.

_____, 『무형문화유산 자원조사 연구』, 2012.

_____, 『무형문화재 기록화 가이드북』, 2010.

박은경 · 정은우 · 한정호 · 전지연, 『범어사의 불교미술』, 도서출판 선인, 2011.

부산광역시, 『부산영산재』 2017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 2017.

불교문화재연구소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 한국민속학회, 『불교 세시풍
속 및 민속놀이 실태조사보고서』, 2011.

불교문화재연구소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불복장의식 현황조사보고서
』, 2012.

_____, 『다비현황 조사보고서』, 2013.

윤소희, 『영남법패연구-국립문화재연구소 희귀음반』, 2011.

- 정관 법주·현익채 편집 등, 『물처럼 살거래이』 부산불교 100년의 발자취, 도서출판 무량수, 2014.
- 정관 증명·현익채 엮음, 『지지않는 향기, 연꽃 부산』, 불교증흥실천협의회, 2016.
- 현익채, 『부산불교계 인명록: 1997』, 불심홍법원, 1997.
- _____, 『부산불교총람』, 불심홍법원, 1993.

2. 논문

- 강용권, 「부산의 전통민속」, 『항도부산』 13,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1996.
- 강인숙, 「불교무용의 연구현황과 과제」, 『불교문예연구』 11,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 2018.
- 구미래, 「불교무형문화유산의 체계적 분류와 조사를 위한 연구」, 『불교학연구』 38, 불교학연구회, 2014.
- 김대래, 「부산의 종교별 인구 비중 추이」, 『부산연구』 제15권2호, 신라대학교 부산학센터, 2017.
- 김미숙, 「부산무용사 연구-1945에서 1972년을 중심으로-」, 『한국무용연구』 14, 한국무용연구회, 1996.
- 김승찬, 「부산의 전통문화」, 『항도부산』 13,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1996.
- 大曲美太郎 著·김의환 譯, 「부산의 고적과 유물에 관한 자료」, 『항도부산』 7,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1969.
- 서정매, 「부산지역 범패승 계보연구」, 『한국음악연구』 51, 한국국악학회, 2012.
- _____, 「경상도 불교음악연구의 현황 및 전망-불교의식음악인 범패를 중심으로」, 『한국음악문화연구』 2, 한국음악문화학회, 2011.
- _____, 「영남지역에 전승되는 <생전예수재> 연구-부산·마산·밀양의 의례절차 비교를 중심으로-」, 『동아시아불교문화』 30,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7.
- _____, 「동해안 곳에 나타난 불교의례적 요소-부산 기장오곡가를 중심으로-」, 『불교문예연구』 10,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 2018.
- 윤소희, 「일제 강점기의 범어사 범패 전승 실태-범어사 보재루와 어산계보사유공비를 통하여」, 『국악원논문집』 34, 국립국악원, 2016.
- _____, 「범패의 연행형식과 의례행위」, 『한국음악문화연구』 4, 한국음악문화학회, 2013.
- _____, 「영남범패전승에 관한 연구」, 『한국음악사학보』 41, 한국음악사학회, 2008.

- 이현주, 「부산지역 전통공예기술의 양상과 전승 연구」, 『향도부산』 31, 부산광역시 사편찬위원회, 2015.
- 조원영, 「부산의 고미술-불교미술자료를 중심으로」, 『향도부산』 13, 부산광역시사 편찬위원회, 1996.
- _____, 「전승 자료를 통해 본 신라통일기 기장지역의 불교」, 『향도부산』 31,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5.
- 진성득, 「불교 다비의식의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최상수, 「부산지방의 세시풍속」, 『향도부산』 2,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1963.
- 최 현, 「영남지역의 삼회향」, 『한국음악문화연구』 12, 한국음악문화학회, 2018.
- 홍연진, 「부산의 지방사 연구현황」, 『향도부산』 8,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1991.
- 홍윤식, 「범패자료조사기」, 『문화재』 2, 국립문화재연구소, 1966.
- _____, 「불교의식용구로서의 불교공예」, 『불교미술』 13, 동국대학교 박물관, 1996.
- 홍태한, 「불교관련 무형문화재 지정현황과 과제」, 『불교문예연구』 11,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 2018.

투고일 : 2018. 11. 12. 심사완료일 : 2018. 12. 03. 게재 확정일 : 2018. 12. 14.

| Abstract |

The Research Direction and Tasks of Intangible Buddhist
Cultural Heritages in Busan

Lee, Hyun-Ju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a research direction and value of intangible Buddhist cultural heritages found in Busan, which occupy the biggest part of the city's intangible cultural assets.

Since the「Intangible Cultural Property Act」was legislated in 2016,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or local governments have been researching intangible cultural assets in a separate way. However, meanwhile, not any separate investigation of intangible Buddhist cultural heritages has been made in Korea. This is also the case for Busan that has its own long history related to Buddhism so the city has a lot of intangible Buddhist cultural heritages inside.

A well-organized research of intangible Buddhist cultural heritages in Busan requires the following three conditions to be met. One is to accept the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Act and the definition and classification systems stipulated in the Decree of Intangible Buddhist Cultural Heritage. The next is to set up the direction in which intangible Buddhist cultural heritages researched here is sorted out and described provided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such intangible cultural assets are taken into serious consideration. And the last condition is to make sure that the research is made based on the very conception of subjects that transmit intangible Buddhist cultural heritages by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those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In the discussion of its range and methods, above all, this study suggested the need to meet a prerequisite, that is, performing a total survey of intangible Buddhist cultural heritages in Busan, whether being still transmitted or not. In association, the study also suggested, it's inevitable that researchers with different expertises make interdisciplinary cooperation and that the Buddhist circles and local self-governing bodies of the city collaborate with each other.

This study made some suggestions concerning a well-organized investigation of intangible Buddhist cultural heritages in Busan. If implemented, expectedly, the suggestions would have some effects as follows. First, very meaningfully, areas that should be focused on in researching intangible Buddhist cultural heritages become clarified, in contrast to the fact that there has so far been no attempt by the academic or Buddhist circles to categorize those inheritance, whether largely or more specifically. Second, it becomes possible with the frameworks, which this study set up to sort out and examine intangible Buddhist cultural heritages in Busan, to get any and all information about those heritages in the city, expectedly contributing to developing a future direction of research that would be made deeper and in mid- and long-term. Third, the outcomes of this study provide a good example of methods using which any other regions than Busan or any Buddhist orders could come into research intangible Buddhist cultural heritages that they have. In doing so, it would probably reveal any and all things about intangible Buddhist cultural heritages that exist across Korea. This would also help make clearer where intangible Buddhist cultural heritages of Busan's own are positioned in terms of status and how much they are sustainably valuable.

key words : Buddhism of Busan, intangible Buddhist heritage,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Act, regionality, sustainability